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20 제 35회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부산 BEXCO에서 '신종 식인성 병원체와 식품안전'을 주제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제35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식품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와 지식을 상호 교환하며, 관련 분야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18건의 학술 세션, 14건의 구두발표와 182건의 포스터 그리고 12개의 부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내가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학문적 교류가 있는 학회이기에 어떤 다양한 연구들이 있을지 가기 전부터 기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COVID-19가 대유행인 상황에서 학회를 간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없지는 않았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긴 했지만, 벡스코는 많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이므로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이러한 걱정들을 접어두고 동대구역을 통해 부산으로 출발하였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부산역에 도착하여 근처에 예약한 숙소에 짐을 맡기고 학회장으로 들어갔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벡스코 자체 방역과 학회 내부 방역으로 나뉘어 동시에 관리되고 있었으며, 등록 부스에서 체온 측정을 한 후 노란 마스크 끈을 배부하여 열 체크가 완료된 인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여 안심할 수 있었다. 시작 시각보다 이른 시간에 학회장에 도착해 사람이 적어 각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실험기기는 없는지 구경하기에 좋았다. 이후 준비해 온 포스터를 부착하였고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개회식과 함께 학회가 시작되었다.

첫 plenary session은 Coronavirus disease (COVID-19)와 관련된 주제로 시작되었다. COVID-19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인 SARS-CoV-2 감염에 의한 질병인데, 현재 이 질병으로 인한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의 연구가 한참이다. 이 때문에 미리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으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며 모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세션들은 위해평가를 위한 고급 접근방식, CODEX 최신동향과 곰팡이 독소 안전관리, 등온증폭 PCR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 '식품매개성 장출혈성 대장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검출기법' 세션을 가장 관심 있게 들었다. 식품에서 shiga toxin을 생산하는 대장균 검출을 위한 방법인 real-time PCR, 효소면역분석과 한천배지배양등을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더 민감한지에 대한 내용과 식중독균의 바이오필름을 제어하는 데 있어 항생제 단일처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병용 처리하여 저감화 효과를 살펴보는 등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았다. 특히 식중독균의 바이오 필름을 제어하는 실험을 계획 중에 있어 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학회모습으로 지도 교수님과 친분이 있는 건국 대학교의 서건호 교수님과 외국에서 오신 연구자 분들을 사진에 담아 보았다. (꼭 사진을 올려달라고 하셨다 ^^)

이후에는 대학원생 구두발표를 보러 이동했는데, 마침 쉬는 시간이 끝나고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시작됐다. 단상 앞에 서서 본인이 실험한 연구를 설명하고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내년에 나도 기회가 된다면 구두발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의 학회 일정이 끝난 후에는 타 대학교 대학원생들과 만났다. 학교가 다르다 보니 학회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새로 들어온 학부 연구생들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저녁으로는 부산에 왔으니 회를 먹어야 한다는 모두의 의견에 따라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현재 각자 진행 중인 연구에 관해 설명도 하고 들으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도 하였으며 실험 중 어려운 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학부 연구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진로 고민도 들었는데, 몇 년 전의 내가 떠올라 그때를 생각하며 얘기를 해 주었다. 저녁을 다 먹은 후에는 교수님들과 만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였다. 학생들끼리 얘기할 때와는 또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고 다짐도 하며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숙소로 돌아와 내일 있을 포스터 발표 준비를 하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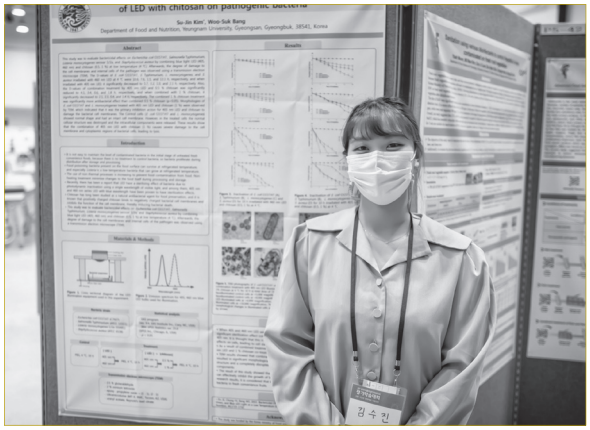
둘째 날은 마지막 날이자 포스터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발표를 앞두고 약간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포스터에 작성한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 대학원생과 대화를 나누었다. 포스터의 주제는 "LED와 키토산의 병용처리를 한 식중독균 세포의 형태를

TEM으로 관찰"하여 손상도를 살펴본 연구였다. 연구의 최종 목적은 오염된 신선편의식품의 식중독균 제어로써 신선편의과일에 LED와 천연항균제인 키토산을 병용 처리하여 주요 식중독균을 제어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터 발표가 끝난 후, 다른 연구자들의 포스터를 구경하였다. 그 중, 현재 연구하고 있는 실험 방향과 비슷한 포스터도 있어 자세히 보게 되었다.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질문의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 다른 연구자들의 포스터를 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관심 있는 실험을 다룬 포스터에서는 질문도 하며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 날의 학회 일정이 끝난 후에는 COVID-19 예방책으로 폐회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 바로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은 이미 가본 적이 있어 제외하고, 근처에 있던 송정해수욕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송정해수욕장은 맑고 깨끗한 물에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며 파도도

학술대회 참관기



거칠지 않다고 알려져 더욱 가보고 싶었다. 도착하니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하게 해수욕장에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바닷가에 와서 바닷물에 발도 담가 보고 맨발로 모래를 밟아보니 좋았다.

푸른 바다와 노을진 하늘을 보며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 진행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정리를 하고, 밤바다가 보이는 주위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다.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을 들으면서, 책이나 논문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최신 식품 동향을 주제로 하여 여러 연구를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식품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나에게는 이번 학회를 다녀옴으로써 앞으로의 목표설정과 더 발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또한 'Safe food'지 학술대회 참가기 작성 기회를 통해 항상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시는 방우석 교수님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육현균 교수님께 감사하단 말을 끝으로 내년 제주 ICC에서 다시 개최될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21을 기대해본다.

김수진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